

2017 경기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항 해설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1]

<출제의도>

이 문제는 독서 교과에서 배우고 있는 「주제 통합적 독서 방법」을 두 편의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수험생의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주제 통합적 독서 방법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보다 흥미롭게, 심층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 통합적 독서 방법을 활용하여 같은 주제 혹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이상의 <권태>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한여름 시골의 한가롭지만 지루한 풍경에서 느낀 작가의 감상을 표현한 수필이다. 작가는 바쁜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작가는 온통 초록색으로 덮인 여름 들판의 풍경에서 심한 권태를 느낀다. 시간은 변화 없이 거의 정지된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흘러간다. 길고 긴 여름 해와 더위는 풍경의 지루함을 배가한다. 인간과 시간, 그리고 자연은 조화로운 합일 대신 서로 분열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이다. 이 작품은 강호의 생활을 네 계절에 나누어 노래하고 있다. 이 주인공의 생활에는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존재하는 조화로우미 있다. 주인공은 아무런 번민도 절박한 문제도 없이 네 계절의 자연적 질서에 평화롭게 몸을 맡기고 있다. 인간과 시간은 아무런 모순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포용하며 일체를 이룬다.

수험생은 두 작품의 화자가 시간을 각각 어떻게 인식, 묘사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2]

<출제의도>

여성 고용 할당제는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사회적 약자 집단인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부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이 당할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나라, 여러 기관에서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공동체 정체성 관점에서 살펴 보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사고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정의의 관점 중 교정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교정적 정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의 내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여성 고용 할당제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해 보자면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려고 할 때 역차별을 당하는 남성들은 그동안 여성을 차별해 온 장본인들이 아니다. 전 세대 남성들이 행해 온 여성 차별이라는 행위를 현재 남성들이 피해를 입어가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교정적 정의에 어긋난다. 교정적 정의는 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에 대응되는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이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특정 사회에서 특정한 지위를 타고 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지위에 따라 나에게서는 저절로 기대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의 도덕적 행위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나)에 적용시켜 보면 여성 고용 할당제는 몇몇 남성들에게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성들이 관계 맺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남성들에게도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위치와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성을 그동안 차별해 온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정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가 된다.